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1차 명단(가나다 순)

연번	성명	소속	선수	내용	근거
1	김경협	더민주	1	‘13.07.13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의 독단적 판단. 마치 히틀러가 나치세력의 결집을 위해 유태인을 집단학살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모양새.”	反윤리(막말논란)
				‘15.03.08 정책조정회의 “종북타령 하는 여당의원들도 김기종씨와 함께 정신감정을 의뢰해봐야 하지 않을까.”	反윤리(막말논란)
2	김광진	더민주	1	‘14.09.2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계류) 국정원 직원 선발시 ‘사상·품행’ 등 자격 요건 삭제. 국정원의 특수성 무시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3.01.12 카카오토리 “민주당 청년비례출마자 모임. 청출어람. 제 정치의 기반이자 원천...근데 그대들 왜 후원금 안내니?!”	反윤리(갑질논란)
				‘12.10.19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원로인 백선엽장군을 향해) “민족 반역자”	反윤리(막말논란)
3	김제남	정의당	1	‘14.03.0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대중소상생협력 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계류) 대형유통기업이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하는 소형마트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 법적규제를 하는 내용	反시장경제
				‘14.02.1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14.02.11 대안반영) 원자력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지만, 정수성의원의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13.12.31) 표절 의혹	反윤리
4	김학용	새누리	2	‘15.07.02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최고위원들이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회의가 중단. 특히 이 과정에서 김태호 의원에게) “에이, XX야, 그만해.”	反윤리(막말논란)
5	남인순	더민주	1	‘13.11.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대선 당시 기초연금 공약을 거론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만원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 쳐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反윤리(막말논란)
6	도종환	더민주	1	‘15.09.10~11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없는 교육부 공문 자료를 마치 국정화의 증거인 것처럼 주장 /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 대상 선정에서 임의로 야권 성향 작가를 배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反윤리 (허위사실유포의혹)
				‘15.10.13 (민중의 소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는 학자가 원고를 만들어서 올려도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어 (정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反윤리 (허위사실유포의혹)

연번	성명	소속	선수	내용	근거
7	문병호	국민의당	2	‘15.07.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계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 감청 승인권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넘겨 감청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군정보수사기관도 통제하도록 함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5.10.26 국회법 일부개정(계류) 국정원 소관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해 국정원에 대한 사실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8	박영선	더민주	3	‘13.09.0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3.08.05 국정원 댓글조사 특위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에게 이럴 수 있어? 저게 국정원장이야?”	反윤리(막말논란)
9	박지원	국민의당	3	‘15.07.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계류) 대기업이 진출한 ‘한식뷔페’ 등을 규제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에 대한 관리 권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함	反시장경제
				‘14.06.23~14.06.2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자진사퇴 혹은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후) 트위터/ (언론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 국정원 장 후보 이병기 전대사가 내정되자) “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주필? 국정원장 후보는 이병기 전 대사?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립니다.” “문창극 총리후보? 제2의 윤창중 될 것 같아 참으로 두렵습니다.”	反윤리(막말논란)
10	서영교	더민주	1	‘12.11.0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계류) 국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사기관의 정당한 감청권한을 지나치게 축소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4.06.18 국회 대정부질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가리키며) “친일파 대통령에 친일파 총리지명은 친일파 내각을 세운 것으로 이는 제2의 경술국치.”	反윤리(막말논란)
11	설훈	더민주	3	‘14.10.17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했냐. 대통령이 연애를 하지 않았겠지마는 안 했다면 더 큰 문제이다.”	反윤리(막말논란)
				‘14.09.12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니운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를 향해)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다, 79세면 은퇴해 실 나이 아니냐.”	反윤리(막말논란)

연번	성명	소속	선수	내용	근거
12	신경민	더민주	1	`13.07.08 광주당원보고대회 (NLL 대화록 관련) “이 대화록은 김무성 지능으로는 도저히 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원장이란 자가 NLL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 와서 뿌렸습니다. 이런 ‘미 친 X’이 어디 있습니까.”	反윤리(막말논란)
13	심재권	더민주	2	`13.03.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계류) `15.02.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계류) 대기업 점포를 신규로 열 때, 지방자치단체의 제한권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하여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함	反시장경제
14	안민석	더민주	3	12.06.13 국회 본회의 회의장 (대정부질문 중)“도대체 (총리는) 아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만한 말씀을 드렸는데, 동 의합니까, 안 합니까?"	反윤리(막말논란)
				`15.08.24 경기 오산 호남향우회 야유회 (향우회 회원 180여 명과 동석한 자리에서 전북 부안 군수에게) “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 을 내려주겠다.”	反윤리(갑질논란)
15	우원식	더민주	2	`14.10.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계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까 지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게 하는 것은 과 도한 시장규제이자 포퓰리즘	反시장경제
				`13.12.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계류) 지자체가 대규모점포 등의 상생품목까지 판매 제한을 명 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과도한 시장규제	反시장경제
				`13.06.26 최고위원회 회의 (NLL 대화록 관련 청와대를 비판하며) “박대통령이 사 주 묵인방조했으며, 사초를 열람하고 무오사화를 일으킨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	反윤리(막말논란)
16	유승민	새누리	3	`14.04.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류) ‘사회적 경제’란 사실상 반자본주의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의 형태로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적인 법안	反시장경제
17	유승희	더민주	2	`13.03.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계류) 개인이 불법적으로 획득해 공개한 정보라도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법적 안정성 위배)	反자유민주주의 反법치주의
				`15.11.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계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지나치게 협 소하게 규정하여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8	윤상현	새누리	2	`16.02.27 통화녹취(공개는 `16.03.08) (김무성대표를 두고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무성 죽여 버려 이 XX. 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중략)“숨아내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려.. 내일 처야 돼. A형한테(도 말하고), B형(과도 같이 의논) 해가지고...”	反윤리(막말논란)

연번	성명	소속	선수	내용	근거
19	은수미	더민주	1	‘15.04.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계류) 경영권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	反시장경제
				‘13.06.25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NLL 회담록 공개 직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합의 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걸어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무 슨 개XX인가. 개처럼 목줄에 끌려 들어가야 하느냐.”	反윤리(막말논란) 反안보
20	이목희	더민주	2	‘12.07.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계류) 이미 대기업이 벌이고 있는 사업이라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될 경우 대기업 퇴출을 강제함	反시장경제
				‘16.01.05 자신의 비서관 월급을 상납 받은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름	反윤리(갑질논란)
21	이언주	더민주	1	‘1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계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배 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나친 시장 간섭	反시장경제
				‘13.09.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계류) SSM 점포 등 설치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 무휴업일을 2일에서 4일로 확대	反시장경제
				‘13.04.13 정론관 국회 브리핑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해) “제 버릇 개 못준 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폭정”	反자유민주주의 反법치주의 反윤리(막말논란)
22	이종걸	더민주	4	‘12.08.05 트위터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그년 (트위터 전문: ‘공천현금’이 아니라 ‘공천장사’입니다. 장사의 수지계산 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아하! ‘그년’은 ‘그녀는’의 줄임말입니다. 나름 많은 생각을 하였지요. 사소한 표현에 너무 메이 지 마세요. ‘그년’과 ‘그녀는’은 같은 말입니다.)	反윤리(막말논란)
				‘15.10.29 정책 조정 회의 (한국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서청원 의원이 야당 의원을 화적때에 비유하고 이정현 의원이 현재 한국 사 교과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화통일을 준 비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분들을 그냥 친 박이 아니라 친박 실정과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통 령께서는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고 답 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反윤리(막말논란)
				‘15.12.22 당원내대책회의 (대통령의 경제위기 관련 발언에 대해) "경제 심리를 철 저하게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선거의 여왕'의 진 면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병신입니까?"	反윤리(막말논란)

연번	성명	소속	선수	내용	근거
23	이학영	더민주	1	`16.02.28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이 자리 서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국정원에게 국민을 무차별 시찰하게 하는 법을 허용 하면 내 육십년 인생이 죽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시는 민주국가가 안될겁니다”	反윤리(막말논란)
				`16.02.28 (2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아만적인 고문 장면 어느 시대의 것이냐 ”며 “항일 독립운동 악행을 연상케 한다”고 강력 비판함(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테러방지법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이학영 의원의 발언을 제지함)	反윤리(막말논란)
24	장하나	더민주	1	`13.12.08 이메일 통한 개인 성명 (개인성명을 통해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같이 대선 보궐선거를 치르자.”	反윤리(막말논란)
				`14.08.22 페이스북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실으며) “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 ”	反윤리(막말논란)
25	조해진	새누리	2	`13.05.2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14.05.02 대안반영) 일명 ‘단통법’으로 단말기 유통을 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반하고, 통신업자의 이익만을 강하게 보호함	反시장경제
26	진선미	더민주	1	`13.10.08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 기관 명칭도 ‘ 통일해외정보원 ’으로 변경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3.07.06 SBS라디오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 이었고, 그 두 사람이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	反윤리 (허위사실유포의혹) * 15.02.04 벌금 5백만원에 약식 기소
27	진성준	더민주	1	`13.06.27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국회법 일부개정(계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 통일해외정보원 ’으로 변경/국회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 신설해 국정원 감독 강화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5.05.2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계류) (한일 간 군사정보 MOU를 체결하려 하자)외국-국제 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	反법치주의

연번	성명	소속	선수	내용	근거
28	최민희	더민주	1	‘15.08.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계류) 감청의 정의에 소프트웨어 포함, 소프트웨어도 인가, 신고, 허가 등 규제 신설해 실질적인 수사를 불가능하게 함	反자유민주주의 反안보 反법치주의
				‘14.12.16 국회 긴급 현안 질문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지난해 5월 몰카(몰래카메라) 시계 2개를 구입했다. 정윤희 문건에 나와 있는 VIP (박근혜 대통령) 눈 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反윤리(막말논란)
29	홍익표	더민주	1	‘13.04.23 트위터 “대선결과는 무효다. 아버지 박정희는 군대를 이용해서 대통령직을 찬탈했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	反윤리(막말논란)
				‘13.07.11 국회 “귀태(鬼胎)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反윤리(막말논란)
				‘14.08.25 페이스북 (고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의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유민 아빠를 향한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과 여당의 인신공격과 음해공작이 도를 넘어 국정원의 개입설도 나온다. ‘조중동’의 기사 행태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나 북한과 같은 독재권력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쓰레기 기사. 정부·여당은 차마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른 최악의 패륜 집단.”	反윤리(막말논란)